

그룹치료가 실어증자들의 언어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The Effects of Group Therapy on the Language Performance of Aphasics: 4 Cases

이 옥 분* · 권 영 주** · 정 옥 란*

Ok-Bun Lee · Young-Ju Kwon · Ok-Ran 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group therapy on the language performance of aphasic patients. Four aphasic subjects participated in group therapy. Their aphasic types were TCMA (transcortical motor aphasia), conduction, anomic, and Broca's aphasia. The focus of the therapy was to stimulate cooperative learning skills. For this purpose, categorization tasks, semantic association tasks, convergent thinking, and divergent thinking tasks were employed. The results showed that all of the aphasic subjects demonstrated some improvement in writing ability, categorization ability, and speaking ability in sentences.

Keywords: Group Therapy, TCMA, Conduction Aphasia, Cooperative Learning Skills

1. 서 론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온 구어 및 언어 치료는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그룹상황에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실어증 그룹치료는 아직도 논쟁의 영역에 놓여져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그룹치료를 개별 치료에 부속되는 기능 혹은 보조하는 역할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개별치료에 종속되는 역할로써 그룹치료의 중재적 효과를 한정지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Schull 등(1964)은 “그룹치료를 실어증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으로써만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룹치료의 효과가 실어증자들이 자연스런 감정 표출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과 밀접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Chapey, 2001, 재인용).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수의 구어 및 언어장애 환자들의 언어재활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룹치료를 실시해 왔다(Kearn, 1994). 그룹치료는 실어증자의 개인 치료에 비해 보다 자연스런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실어증 환자들은 협력 학습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과 구어 행동들을 배운

*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 경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

다(Elman, 1999). 즉, 개별치료의 경우 실어증자 개인의 언어능력에 맞춘 목표과업을 실제 생활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능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그룹치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MaCarney와 Johnson(2001)은 그룹치료를 통해 실어증 환자의 언어 표현 능력에서 관찰되는 언어학적인 오류(linguistic errors)를 최소화하고, 보상전략들을 활용하며,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개선시키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Avent(1997)는 그룹치료를 통한 협력 학습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룹 내 실어증자들의 상호작용은 각기 개성이 다른 실어증자들의 인지적, 감정적, 초인지적(metacognitive), 그리고 사회적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제각기 다른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실어증자들이 협력 학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내재된 인지적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아 Elman(1999)이 제시했던 것처럼 그룹치료가 실어증 재활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어증자들의 그룹치료의 효용성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언어 재활 분야에서는 실어증자의 그룹치료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언어장애 아동이나 학습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지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보고되고 있으나, 사실상 성인 신경언어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실어증자들을 위한 그룹치료를 통한 임상환경이 실어증자들의 인지와 의사소통 기능이 보다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토대로, 실어증자들의 언어재활의 접근방법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인지적, 그리고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동시에 다학문적인, 다차원적인 언어중재 방법의 구안에 중요한 전략적 정보들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유형을 달리하는 실어증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협력학습기술을 촉진시키는 패러다임 하에서 실어증자들의 연상된 단어 쓰기 능력, 범주화 능력, 문장 표현력 등을 향상시키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4 명의 실어증자이다(표 1 참조). 대상자 1은 구두 이해력은 비교적 정상 수준이나, 자발적인 단어 및 문장 표현력이 크게 부족하다. 그러나 따라 말하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대상자 2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따라 말하기나 읽기, 쓰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 3은 이중언어 실어증자로 실어증 유형은 건망성이다. 표 1에 제시된 K-WAB의 검사 결과는 한국어로 실시한 결과이다(대상자는 영어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이 한국어에 비해 좋은 편이다). 이 대상자는 일상적인 대화(한국어)에서는 대화 중에 단어를 생각해내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읽기, 쓰기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관찰되었다. 또한 긴 문장의 구두어를 제시했을 경우 이해력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

나 구두 표현력을 살펴보면 유창성, 리듬, 억양 등이 자연스럽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어휘를 쉽게 산출하지 못한다. 대상자 4는 브로카 실어증자로 간단한 명령어나 지시어, 일상적인 대화는 잘 이해하는 편이나, 긴 문장의 구두어에 대한 이해력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이해력에 비해 자발적인 구두 표현 능력이나 따라 말하기 능력은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를 구두로 나타내기는 힘드나, 가끔씩 그림이나 제스처로는 비교적 잘 표현하는 편이다.

표 1. 대상자 특성

| 대상자 | 성별 | 나이 | 뇌사고 유형 | 발병 후 경과기간 | 실어증 유형 | K-WAB AQ | 실어증 정도* |
|-----|----|----|--------|-----------|------------|----------|---------|
| S1 | 여 | 57 | CVA | 2 년 | TCMA** | 66.6 | 2 |
| S2 | 남 | 55 | CVA | 1 년 4 개월 | Conduction | 76.8 | 2 |
| S3 | 남 | 41 | CVA | 1 년 3 개월 | Anomia | 52.6 | 2 |
| S4 | 남 | 42 | CVA | 2 년 5 개월 | Broca | 36.6 | 1 |

* 보스턴 실어증 진단 도구(BDAE)의 실어증 정도 평가 결과

** 연결피질 운동 실어증(transcortical motor aphasia)

2.2 평가도구

2.2.1 단어의 쓰기 정확도 평가

목표 단어가 필요한 상황이 재현되어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하고, 대상자들이 스스로 연상하여 그 상황에 필요한 단어를 적도록 한다. 이때, 필요한 단어를 구두로는 표현이 가능하나 단어적기에서 오류가 나타나면, 틀린 반응으로 간주한다. 평가 어휘는 총 20 개로 일상 사물 중심의 어휘(예: 면도기, 우산, 크레용, 가위 등)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정반응 어휘수에 총 어휘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2.2.2 범주화 능력 평가

범주화 능력의 평가에서는 연구자가 5 개의 범주(탈 것, 직업, 운동종목, 가전제품, 동물)로 구분되는 의미가 포함된 목표 어휘를 제시하고, 대상자들이 5 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어휘를 각각 4 가지씩 말하도록 한다. 점수 환산은 단어 쓰기 정확도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2.2.3 문장 표현력 평가

문장 표현력 평가에서는 12 개의 그림카드를 보고 세 단어 문장 수준으로 설명하기 능력을 검사하였다. 각각의 그림카드는 ‘~(으)로 ~(을)를 ~합니다’ 와 ‘~에서 ~을(를) ~합니다’ 의 두 개 구문 형식에 맞춘 문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 표현력에 대한 평가 척도는 표 2와 같다. 12 개의 그림카드에 해당하는 총 점수는 36 점(각 문장의 3 점×12 장의 그림카드)이고, 대상자가 획득한 점수에 12를 나눈 결과치가 대상자의 문장 표현력 최종 점수가 된다. 즉, 대상자 1이 치료 전 평가에서 획득한 점수가 15 점이면, 여기에 12(그림카드 개수)를 나누어 산출된 1.25가 결과치가 된다.

표 2. 문장 표현력 평가 척도

| 평가척도 | 발화 예문 | 고려사항 |
|------|---|---|
| [3]점 | 가위로 종이를 자른다 가위로 종이 자른다 가위(갖고) 종이 자르지 | 조사를 생략하더라도 세 개의 단어가 정확히 표현이 되고 의미가 전달되면 정반응으로 체크한다. |
| [2]점 | 가위로 종이 이렇게(J)하지 가위로 이거(P) 자르지 이걸로(P) 종이 자른다 | J는 제스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사 표현에서 정확한 단어 사용을 하지 않고 제스처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지'라고 말하는 부분은 오반응으로 체크한다. P는 그림카드의 해당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오반응으로 체크한다. |
| [1]점 | 가위로 하네 가위로 이렇게(J) 하지 이걸로(P) 종이 이렇게(J) 한다 | 발화한 문장 내에서 정확하게 단어로 표현된 부분만 정반응으로 체크한다. |
| [0]점 | 이렇게(J) 하지 | 문장 내 정확한 단어 표현은 없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오반응으로 체크한다. |

2.3 그룹활동을 통한 언어중재

본 연구과정에서 그룹활동을 실시하여 중재한 기간은 5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총 23 세션이다. 표 2.3은 그룹활동시 중재된 주요 언어훈련 과업들에 관한 내용이다. 과업의 내용 구성은 Chapey(2001)이 제시한 실어증자를 위한 인지적 언어중재 전략들에 대한 내용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연구 의도에 맞게 훈련과업들을 구성하였다. Chapey(1986, 2001)의 저서에서 실어증자들을 위한 인지적 중재의 핵심 과업으로 크게 인지, 기억,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 판단하기(evaluative thinking) 등을 중심으로 훈련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업들 중, 인지와 기억,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훈련을 인용하였다. 즉, 인지와 기억 훈련의 일환으로 범주화와 의미론적 연상과업으로 구분하여, 치료에서 제시되는 일상 사물들의 그림카드나 단어들을 범주 특성에 맞추어 연결시키는 훈련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자극물들에 내재된 의미들을 자발적으로 연상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의 훈련과업들은 Chapey(1986, 2001)에 제시된 다수의 훈련 항목들 가운데 연구의도에 맞추어 선택하였다.

모든 단계에서 과업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과업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설명해 준다. 그런 다음, 대상자들이 과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대상자들 간에 서로 비교하여 점검하도록 한 다음,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정반응과 오반응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대상자 1과 대상자 4는 비유창성 그룹, 대상자 2와 대상자 3은 유창성 그룹으로 짝을 지어 연구자가 제시하는 중재과업을 협력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단계 II와 III의 과업들을 수행할 경우에, 연구자는 대상자들의 답을 확인하기 이전에, 두 개의 그룹 내에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매 단계마다 약 5분 가량 제시한다. 단계 IV에서는 동일한 과제에 대해 각 대상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두 혹은 제스처, 혹은 쓰기 등을 표현하도록 한 다음, 서로간의 반응의 정확성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표 3. 언어 중재 핵심 과업

| 단계 | 단계별 주요 과업 | 주요 활동 |
|--------|------------------------------------|--|
| 단계 I | 범주화 | 1. 범주별 관련 그림카드 선택 2. 범주별 관련 행동 취하기 3. 범주별 관련 단어 쓰기 |
| 단계 II | 의미론적 연상과업 | 1. 범주별 단어 명명하기 2. 자극물의 속성 표현하기 3. 원인-사건을 유추하기 |
| 단계 III | 수렴적 사고 훈련 (Convergent Thinking) | 1. 제시된 자극물의 범주적 특성을 쓰기 2. 제시된 자극어휘와 관련한 어휘를 쓰기 3. 제시된 자극물을 큰 범주와 작은 범주로 분류하기 |
| 단계 IV | 발산적 사고 훈련 (Divergent Thinking) | 1. 제시된 자극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2. 의문사에 정확히 대답하기 3. 주제 변화에 따른 대화 나누기 |

3. 결과

3.1 단어의 쓰기 정확도

그룹치료 과정에서 목표 단어가 필요한 그림카드를 보고 자발적인 연상을 통해 단어를 쓰도록 하고, 연구자가 먼저 평가하기 전에 대상자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단어의 틀린 부분을 고치도록 한 다음, 임상가가 전체적인 쓰기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그룹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 모두 단어의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대상자 1은 치료 전 30%에서 치료 후 55%로 25% 증가하였고, 대상자 2는 40%에서 60%로 20% 증가하였으며, 대상자 3은 25%에서 45%로 20% 증가하였고, 대상자 4는 25%에서 40%로 1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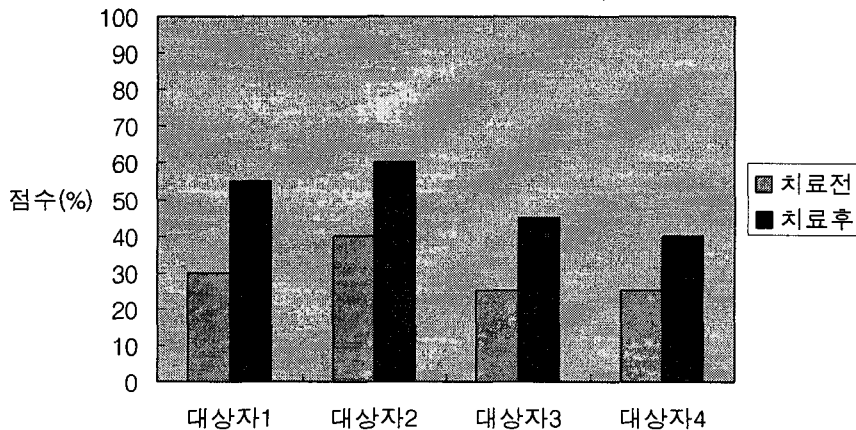


그림 1. 치료 전·후의 대상자들의 쓰기 정확도

3.2 범주화 능력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범주화 능력은 치료전과 비교했을 때 치료 후에 평균 30% 정도 향상되었다. 범주화 과업은 실어증자들이 표현하는 어휘의 속성이나 범주에 해당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뒷받침으로 한다. 대상자 1은 치료 전 30%에서 치료 후 70%로 40% 증가하였으며, 대상자 2는 치료 전 35%에서 치료 후 65%로 30% 증가하였고, 대상자 3은 25%에서 55%로 30% 증가하였으며, 대상자 4는 10%에서 30%로 2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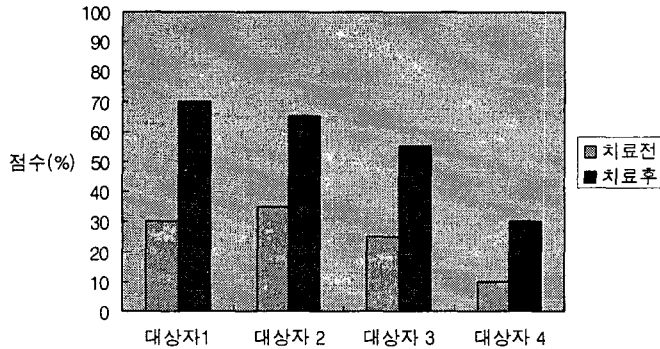


그림 2. 치료 전·후의 대상자의 범주화 능력

3.3 문장 표현력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활동을 통한 언어중재가 실어증자들의 문장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들이 발화의 길이와 표현력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 1은 치료 전 1.25 점에서 치료 후 1.83점으로 0.58 점 증가하였고, 대상자 2는 1.66 점에서 2.58 점으로 0.92 점 증가하였고, 대상자 3은 1.75 점에서 2.41 점으로 0.66 점 증가하였으며, 대상자 4는 0.91 점에서 1.33 점으로 0.42 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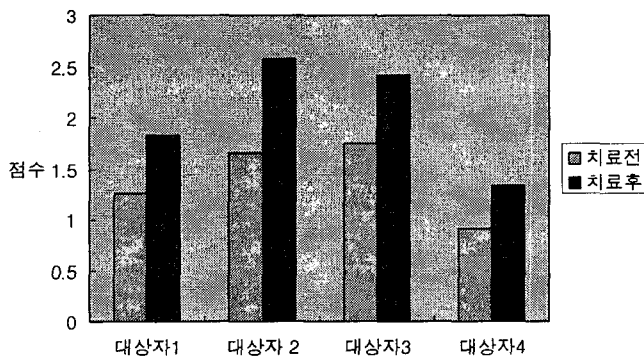


그림 3. 치료 전·후의 대상자들의 문장 표현력

4. 토 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본 연구에서 그룹치료라는 언어 중재 환경이 실어증자들의 언어 수행력 향상에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룹치료라는 환경적 구조가 대상자들 간의 협력 학습을 통해 실어증자들 간의 잔재된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해 내는데 있어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룹치료 과정동안 비유창성 그룹과 유창성 그룹으로 짝을 지어 대상자들간의 협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중재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평가한 실어증자들의 단어 표현 능력(쓰기), 범주화 능력, 문장 표현력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는데, 이들은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치료 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과 1의 단어 쓰기 정확도에서 대상자들 모두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MaCarney와 Johnson(2001)이 그룹치료가 실어증자들에게 언어학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상 전략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증명한 것이다. 즉, 그룹으로 형성된 실어증자들이 서로 도와가며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반복 학습에 의해서 글자의 언어학적 규칙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들의 자발적인 철자 교정 시도들이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결과 2의 범주화 능력에서는 제시된 범주의 특성에 맞는 어휘들을 맞추기 위해 그룹 내에서 서로 협력하여 구두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보상적인 방식들 즉, 제스처, 쓰기, 지적하기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반복되는 치료 회기 동안 어휘의 범주적 개념 이해 및 표현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결과 3의 문장 표현력에서 나타난 대상자들의 향상도는 Avent(199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8 명의 뇌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술형 담화(narrative discourse)와 과정적 담화(procedural discourse) 과업을 중심으로 실시한 그룹치료가 실어증자들의 언어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Kearns(1986)는 그룹치료 상황에서 언어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실어증자들의 발화길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룹치료가 실어증자들의 언어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룹치료는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나 임상적 적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실어증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치료와 그룹치료의 효용성을 비교하고, 각기 다른 임상 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실어증자를 위한 특정한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그룹환경에서 적용시킬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Avent, J. R. 1997. *Manual of Cooperative Group Treatment for Aphasia*. Washington Butterworth Heinemann.
- Avent, J. R. 1997. "Group Treatment in Aphasia Using Cooperative Learning Methods."

- Journal of Medical Speech-Language Pathology*, 5, 9-26.
- Chapey, R. 1986.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dult Aphasia*. (2nd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 Chapey, R. 2001.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 (4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 Elman, R. J. 1999. *Group Treatment of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 The Expert Clinician's Approach*. Washington: Butterworth Heinemann.
- Kearns, K. P. 1994. "Group Therapy for Aphasia: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In R. Chapey. (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dult Aphasia*. (3rd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 MaCarney, C. T. & A. F. Johnson. 2001. "Examining Conversational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Chronic Aphasia during Three Group Conversations." *Aphasiology*, 15, 1017-1028.

접수일자: 2002. 7. 27.

게재결정: 2002. 8. 31.

▲ 이옥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88번지 (우: 705-714)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Tel: +82-53-650-8274
 E-mail: ob-lee@hanmail.net

▲ 권영주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 50번지 (우: 700-721)
 경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
 Tel: +82-53-420-5776
 E-mail: fall0912@hanmail.net

▲ 정옥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88번지 (우: 705-714)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Tel: +82-53-650-8274
 E-mail: oj@daegu.ac.kr